

김장용 배추 도·소매 가격 평년 수준으로 안정

- 송미령 장관, 충북 괴산군 방문하여 김장배추 생육 및 절임배추 가공 상황 점검
- 정부 할인지원 영향으로 김장재료 소비자 가격 평년수준으로 안정, 절임배추 가격도 전년 수준, 가정에서 필요하신 만큼 김장 담그시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9일(화)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하여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 * 배추 도매가격 : (11.중순) 2,621원/포기(평년비 3.5%↑, 전월비 58.9%↓)
- 소매가격 : (11.중순) 3,583원/포기(평년비 0.9%↑, 전월비 56.5%↓)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수준으로 안정되었으니, 가격 걱정없이 가정에서 필요하신 만큼 김장을 담그시길 당부드리며, 절임배추를 이용하시면 김장을 하시는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 많이 애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 현장 방문 사진 및 영상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배민식 (044-201-2232)

